“사회적 약자 아픔 끝까지 함께 할 터”

사노위, 8월 24일 10주년 기념식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부대중 모여 그동안 노고 축하
지몽 스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 이어져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사회노동위 10주년 기념식.

“노동과 빈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억압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난한 이,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오는 날까지 거리에서 기도의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부처님 자비와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는 법석을 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기념식은 10년간 사노위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 자리이자 성찰의 자리였다. 법석에 모인 이들은 1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축하공연도 선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노위가 부처님 정법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구심점이 돼 준 것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원행 스님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시기, 사노위 출범은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면서 “조계종은 사노위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불교의 대승보살 정신을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년 동안 변함없이 사노위와 함께 현장을 지켜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10년간 사노위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참여를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동안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지몽 스님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서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묵묵히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함께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사회구조적인 사회업((社會業) 역시 조금씩 녹아날 것이며, 그 아픔과 고통이 녹아난 자리는 분명히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사노위와 함께한 단체들의 축하인사와 공연이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10년 전, 사노위를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 지부장은 “2012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가 대두됐을 때,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단식 농성 천막에 찾아와 따듯하게 손잡아 준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지난 10년간 성과를 만들어가는 작은 과정 하나하나를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앞으로도 사노위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축하 인사도 영상으로 이어졌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천주교 서울교구노동사목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 하겠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다” “코로나19와 힘든 정치상황 속에서 더욱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입을 모았다.

기념식은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부대중은 단상에 오른 활동가들의 목탁에 맞춰 ‘비정규직 철폐하자’ ‘평등세상 앞당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고 구호를 외치며 고통받는 이들이 행복과 평온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노위, ‘동사섭’ 참된 의미 일깨워”

출범 10년 평가·전망 세미나
발제자들, 그간 활동에 치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에서 특별히 부러운 점은 종단의 가장 중요한 날인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세우고 함께하는 모습은 조계종이기에, 사노위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협의회도 사노위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크리스마스에 성소수자들을 모시고 이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불의한 일을 겪었지만 호소할 곳 하나 없어 괴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싸워온 것이 바로 사노위의 활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동사섭’의 참된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발원하며 2012년 8월 발족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10년 소회로 시작됐다.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한 양 위원장은 “사노위의 주인은 조계종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위한 꾸준한 활동은 사노위가 형식적이 아니라 아픔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활동해 나가는 실천 기구로서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이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찾는 기구가 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 사회, 인권, 빈곤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상근활동 스님 증가 △현장서 진행되는 종교적 방법의 대중화 △실천활동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노위와 연대한 단체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사노위 10년에 대해 빈곤철폐와 노동해방, 평등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손 내미는 곳에 사노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앞으로도 사노위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동료로서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일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 박해·순교 신화 갇혀선 안돼”

불교사회연구소, 8월 22일 세미나
이창익 고려대 교수 등 발제 나서



불교사회연구소가 ‘다종교 현상과 종교공존’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

“종교가 더 이상 세상을 회상하고 세상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의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얼마나 또 더 불안해질까요.”

8월 22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22년도 호국불교 연구 학술대회-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익 고려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순교 개념이 굴절돼 간 양상을 밝힌 발제 ‘종교와 국가의 근접 조우-일제강점기 순교 개념의 굴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 현재를 깊게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종교적 신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순교 등 종교 탄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문제, 근대 세속주의 사회에서 빚어지는 공공성과 신앙의 공존 문제, 종교 전파시 발생하는 문화적 긴장과 화해의 문제,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앙과 전통적 가치 충돌의 문제, 정치적 혼란으로 촉발된 종교인의 망명이 타 지역의 문화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익 고려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은 신자를 유입하기 위해 ‘순교’라는 종교적 가치를 이용했고 신화를 창작하고 재구성하며 종교의 핵심 자원으로 안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를 회상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 현재를 깊게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 종교적 신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한국종교의 순교 개념이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순국 개념처럼 굴절되는 데 기여했던 과거는 분명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청산돼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종교 집단과 조직 공존이 필요하기보다는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자신의 것을 일부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종교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문화사업단, 뉴욕서 전통불교문화 홍보

한미수교 140주년 맞아
불교문화 홍보행사 진행

뉴욕에서 열린 사찰음식 토크쇼를 진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

미국의 중심부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홍보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제5회 한국전통불교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가 더 크다.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뉴욕 그랜드센트럴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에서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관 스님과 지견 스님은 사찰음식 시연과 시식을 통해 한국 사찰음식의 매력을 알렸다.

8월 23일 저녁에는 관광업계 관계자, 정관계 인사, 각국 대사 및 영사, UN대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프리아니 42번가 이벤트홀에서 사찰음식 만찬이 진행됐다.

리셉션에서는 청태천 연꽃차와 사찰부각을 선보였으며 전식에서는 토마토 장아찌를, 본식에서는 여름채소겉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음식을, 후식으로는 흑임자 약과와 천진암 발효차를 제공했다.

이어진 행사들에서는 템플스테이 체험, 사찰음식팝업 레스토랑 등이 호응을 받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된 현재, 우리의 K-팝·K-드라마 같은 미디어 문화가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정신문화인 사찰음식, 불교문화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며 “2010년 사찰음식 행사를 시작으로 뉴욕에서 5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